韓國青銅器文化의 起源에 관한 一小考

金 貞 培

序 言
Ⅰ. 中國北方의 青銅短劍 問題
Ⅱ. 카라스크 文化의 石棺
Ⅲ. 韓國 青銅器文化의 起源
結 語

序 言

韓國의 青銅器時代나 그 文化를 연구하려고 시도할 때 그 時代나 文化가 지니는 歷史性과 方法論에서 성공적으로 벗어나야 意味있는 연구성과가 이룩될 수 있다는 것이 近來 더욱 明白하여 지고 있다. 일찌기 筆者는 우리나라의 青銅器文化가 上古史와 어떻게 연관되며, 또 이 文化의 담당 住民이 누구이고, 인접 인접 國家와의 文化編年 体系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등을 광범위하게 논한바 있다.[1] 따라서 筆者는 韓國의 青銅器文化가 시베리아의 青銅器文化인 카라스크(Karasuk)文化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가지 要因을 들어 說明하였다.

그후 筆者와 같은 意見을 개진한 見解로 나타났으며 이와는 반대로 韓國의 青銅器文化가 中國과 밀접한 文化관계라는 說도 발표되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견해들이 한결같이 우리나라 青銅器文化의 實相을 밝히려고 노력하는 증거라고 본다면 앞으로도 各人各論의 더 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속출하는 것은 오히려 學界를 위해 바람직한 方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그러나 어느 입장을 고수하던 간에 方法論에 있어서나 理論面에서 가장 취약성을 들어내고 있는 점을 지적한다면 아래의 몇가지 사항이 이에 해당되는 문제라고 지적할 수가 있을것 같다.

첫째, 青銅器文化의 研究가 遺物과 遺蹟의 相年的인 비교에만 머물고 있어 上古史와의 연결문제를 피하고 있는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青銅器時代와 文化는 上古史의 一面을 차지하는 比重이 큰 問題이므로 上古史를 유념하지 않고는 그 歷史性은 價値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 이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青銅器文化의 本來모습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둘째, 韓國의 青銅器文化를 언급할때 韓半島내에서 발견되는 遺物에만 関心을 집중하는 것은 바람직한 方法論이 아니다. 中國의 東北地域과 시베리아의 青銅器文化를 총괄하는 보다 넓은 視野를 가져야 하며 이를 취급하는 資料批判의 能力을 갖추어야 할 것 같다.

셋째, 韓半島內의 資料만을 취급하는 것은 어느면에서 타당성이 있으나 유물의 型式만을 위주로 삼는 비교방법은 분명히 限界性이 있다. 흔히 우리는 이와같은 論考들을 보게되지만 자칫하면 논고들이 지엽말단적인 문제를 취급하고 있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때가 있다. 相対的으로

1) 金貞培 1971. 〈韓國青銅器文化의 史的考察〉 《韓國史研究》6. 1－34. 《韓國民族文化의 起源》所収 (高麗大出版部 1973)

형식에 치우쳐 유물만을 비교, 분석하다 보면 編年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형식에 억매어 유물의 使用期間을 무시하게 되는 커다란 오류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編年設定에는 자승자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넷째, 中國의 資料를 취급하면서 遺物과 年代는 採用하는 반면, 遺物의 담당 住民들은 무시하거나 큰 關心을 갖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결국 어느 나라의 靑銅器文化를 연구하는 것인지 의심이 간다는 뜻이다. 이와같은 현상이 설사 무의식으로 일어났다 하여도 그것은 유물을 重視하였기 때문이라는 정당한 理由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研究者의 基本的인 歷史觀의 결여가 노증되었다는 사실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점을 상기해야 할것이다.

위의 사항들은 그동안 筆者가 靑銅器文化의 연구과정을 보면서 느꼈던 취약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것 같다. 그동안 여러 學者에 의해서 韓國의 靑銅器文化는 그 起源에 관한 새로운 見解도 나왔고, 編年등에도 注目할만한 新說들이 提起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筆者는 범위를 가능한 좁혀 흔미를 거듭하고 있는 우리나라 靑銅器文化의 源流가 어떻게 理解되어야 할것인가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이 問題가 우리나라 靑銅器文化와 研究의 전부가 아님을 물론이지만 가장 중요한 기둥이 되는 논의임에는 틀림이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같은 方向의 논의는 향후 우리나라 上古史의 어느 面을 겨냥하는 중요한 문제가 될수 있다는 확신에서 다시 붓을 잡은 것이다.

Ⅰ. 中國北方의 靑銅短劍 問題

韓國의 靑銅器文化를 언급할때 우리는 자주 中國의 東北地方의 靑銅器文化를 원용하거나 적어도 여기에 의식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朝陽十二台營子에서 中國 자체의 靑銅器文化와는 이질적인 유물이 출현하면서[2]부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견해라 할것이다. 朱貴는 報告書에서 靑銅短劍과 細文鏡등이 遼寧등지 뿐만아니라 韓半島와 시베리아 지역등에서도 발견됨에 주목하면서 이 유물의 主人公이 東胡族들이고 이들의 年代는 春秋晩期 혹은 戰國時代에 속한다고 보았다.[3] 十二台營子 靑銅短劍등의 발견은 이후 韓半島에서 주로 나타나는 細形銅劍의 祖型으로 간주되었고[4] 우리나라 靑銅器文化를 中國의 東北地方에서 求할 수 있는 하나의 可能性이 제시된 셈이 되었다.

朱貴의 報告書로 크게 注目받게 된 十二台營子의 靑銅短劍은 일명 琵琶形銅劍이라고 부르는 短劍이다. 때로는 滿洲式銅劍, 또는 近年에 遼寧式銅劍이라고 命名되기도 하지만 이제는 이와 같은 형식의 銅劍이 中國와 東北地域과 韓半島에서 광범위하게 함께 出土되고 있어 琵琶形銅劍 이라고 부르는 것이 적합한 명칭이라고 보고자 한다. 사실 靑銅器文化를 논하는 과정에서 이 靑銅短劍은 주요한 연구대상이 되고 있어 이 글에서도 이 問題가 하나의 중요과제가 될 것이다. 일찌기 筆者

2) 朱貴 1960 〈遼寧朝陽 十二台營子 靑銅短劍墓〉 《考古學報》 1
3) 朱貴 〈同上 論文〉 70.
4) 金元龍 1961. 〈十二台營子 靑銅短劍墓〉 《歷史學報》 16, 120.
정찬영 1962. 〈좁은 놋단검의 형태와 그 변천〉 《고고민속》 3 .

는 朱貴가 報告한 유물과 유적의 主人公이 東胡族이 아니고 濊貊族이라고 간주한 바 있다. 따라서 琵琶形銅劍과 細形銅劍이 전후의 관련속에서 연관이 된다고 할때 前者를 濊貊 I期, 後者를 濊貊 II期로 나눌 수 있다고 논급하였다.[5]

그런데 中國 東北地方에서 琵琶形銅劍이 알려진 것은 十二台營子보다 훨씬 오래전에 이미 南滿洲 老鐵山 郭家屯에서 地下 二尺되는곳의 小石등으로 둘러쌓인 墓에서 15개의 劍이 同時에 발견된 例가 있었다.[6] 물론 이 사실을 간단히 보고한 島田은 이 型式이 細形銅劍 系統이라고 희미하게나마 언급하였지만 鑄造年代를 漢初로 잡는 年代觀을 결국은 제시하고 말았다.[7] 여하튼 郭家屯에서 알려진 바와같은 琵琶形銅劍은 그 뒤에도 遼寧省에서 集中的으로 出土하므로써 우리의 注目을 끌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종래 극히 단편적으로 韓半島에서 알려진 琵琶形銅劍이 실은 우리나라 거의 전역에서 지금까지 계속 出土例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매우 興味로운 사실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이 問題는 뒤에서 다시 간단히 언급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와같이 中国의 青銅器文化와 다른 琵琶形銅劍이 中國의 東北地域에서 넓은 分布를 보이게 됨에 따라 이 問題를 새롭게 보려는 견해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간 비파형동검에 관한 개별적인 논고들은 많이 있었다. 그러나 한결같이 中共측의 報告書들은 이 유물들이 東胡族의 所産이라고 간단히 結論을 맺곤 하였다. 이것은 朱貴이래 中共에서 나타난 견해의 共通点이라고 볼 수 있을것 같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이 青銅短劍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論文이[8] 나타나게 되었다. 烏恩의 論은 다음의 두가지 관점에서 종래의 그들의 견해와 완전히 方向을 달리하는 논조를 개진하고 있다.

첫째, 지금까지 中共에서 報告한 北方青銅短劍이 東胡族의 所産이라는 해석에서 태도를 달리하여 모든 東北地域의 青銅短劍이 殷代 이래의 中國 青銅器文化의 영향으로 부터 나타난 結果라고 보는 생각이다.

둘째, 그러한 관점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시베리아 青銅器文化 영향설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나선 점이다. 지금까지 中國의 青銅器文化와 시베리아 青銅器文化 사이의 相互 交流 問題가 未解決의 狀態에서 논쟁중에 있던 때이다. 그런데 이제 北方 青銅短劍이 시베리아 青銅器文化의 영향이 아니라고 구체적으로 "카라스크"文化의 영향설을 부정하고 나섰다는 사실은 새로운 현상임에 틀림이 없다. 中國 東北方의 青銅短劍을 논하면서 中共에서 시베리아 "카라스크"文化를 꼬집어 들고 나온 것은 이제까지 例가 없었던 사실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関心을 끌고 있다. 이것은 적어도 中國 東北方의 青銅短劍등의 青銅器文化가 시베리아의 青銅器文化와 여하간에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可能性을 차제에 부정하고 있다는 논조도 된다. 이제 그가 中國 東北地域에서 出土된 青銅短劍의 地名을 열거한 것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山西保德林遮峪峪

---

5) 金貞培 〈前揭論文〉 參照.

6) 島田貞彦 1938. 〈南滿洲 老鐵山麓 郭家屯 附近 發見の銅劍に就いて〉《考古學 雜誌》28—11, 730~734.

7) 島田貞彦 〈同上 論文〉 7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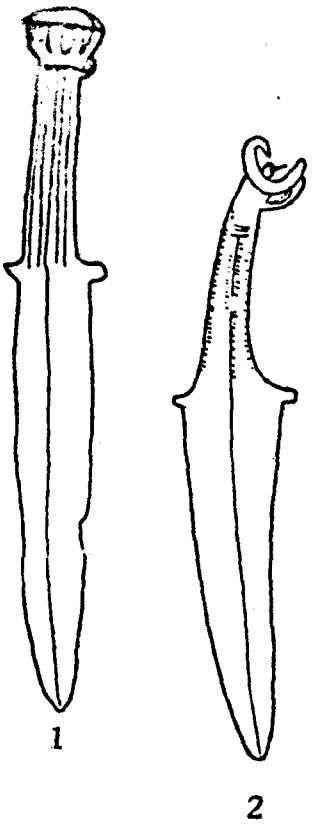
8) 烏恩 1978 〈関于我國北方的 青銅短劍〉《考告》 5, 324~333.

內蒙古烏盟和林格尔縣 范家 窯子
伊盟杭錦旗桃紅巴拉
河北青龍抄道溝
〃 平泉東南溝
〃 懷來北辛堡
〃 承德
〃 涿縣
〃 望都
〃 新城
北京 昌平 白浮村
〃 房山 琉璃河
遼寧 寧城 南山根
〃 寧城附近
〃 朝陽十二台營子
〃 錦西烏金塘
〃 寺兒堡
〃 沈陽鄭家窪子
〃 南塔
〃 喀左南洞溝
〃 海城大屯
〃 遼陽亮甲山
〃 二道河子
〃 旅順劉家疃
〃 官屯子
〃 后牧城驛
〃 郭家屯
吉林 懷德大青山

위의 地名에서 곧 알 수 있는 바와같이 青銅短劍의 分布는 河北에보다는 遼寧에 集中的으로 밀집하여 出土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韓半島 內에서 발견된 다수의 琵琶形 短劍을 고려할 때 濊貊族의 分布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보아도 크게 잘못이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에 烏恩은 青銅短劍을 Ⅰ型, Ⅱ型, Ⅲ型으로 大別하고 Ⅱ型은 ⅡA型, ⅡB型, ⅡC型으로 나누고 Ⅲ型도 ⅢA型, ⅢB型, ⅢC型으로 세분하고 있다. 이제 각 型에 해당하는 青銅短劍과 分布 및 時期를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Ⅰ型：소위 曲柄劒으로 劒刃은 平直이나 脊中에는 稜이 있고 손잡이가 구부러진 曲柄이다. 柄節은 幾何紋이 있고 柄과 劒身사이에는 양쪽에 돌기한 小齒가 있다.(圖一－2) 山西 保德縣 林遮岬峪과 河北 靑竜抄道溝에서 각각 발견된 바 있다. 그러나 정확한 年代는 알 수가 없으며 원래의 報告者는 이러한 劒이 戰國初보다 늦지 않을 것으로 보는 모양이나 烏恩은 環首 鈴首, 獸首刀의 특징으로 미루어, 그리고 保德林遮岬峪의 유적이 商代 晩期 또는 西周 초기이므로 이러한 정황에서 Ⅰ型式의 劒을 商代 晩期 혹은 西周 초기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종류의 劒들이 발견된 例가 적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추측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圖一
Ⅰ型. 1. 保德 林遮岬峪
2. 靑竜抄道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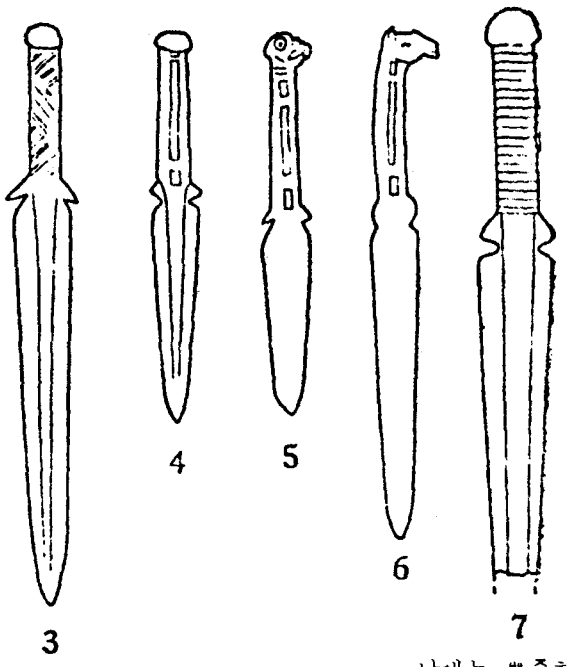
Ⅱ型：柳叶劒으로 劒刃이 平直하고 脊中에는 稜이 있으며 그 단면은 細長한 菱形으로 劒身, 首, 莖이 一次로 造成된 劒이다. 이를 다시 區分하면 다음과 같다.

ⅡA型：劒身과 莖間의 양쪽에 斜形의 小齒가 있고 齒下 밑에는 缺口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柄首는 獸首形, 鳥頭形, 蕈菇形등이며 莖上에는 方形, 長方形의 凹槽 혹은 螺旋紋 斜線 幾何紋이 있다(圖 二 3－7). 이 劒은 주로 河北省의 北部에서 出土되고 있으며 그중에서 C_{14}이 기원전 1120±90[9] 이란 중요한 年代가 나와 있는 것이 주목되는 현상이다. 이 年代에 따르면 기원전 12세기에 動物문양의 柄首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劒의 出土地가 河北의 北部에서 나온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사실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다.

ⅡB型：ⅡA型과 마찬가지로 劒身과 莖사이에 斜形의 小齒가 있고 齒下 양쪽에 缺口가 있다. 缺口가 작아지고 劒身은 ⅡA型에 비하여 넓어지고 있다. 柄首는 動物形 三蛇結合形 梳齒形 扁圓形이며 莖의 장식은 羽狀紋 鋸長文 圓点方, 格紋 動物紋을 그리고 있다(圖三 8－12). 이러한 형식의 劒은 遼寧西部와 河北 北部에 分布하고 있으며 年代는 西周 後期 혹은 春秋초기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유물은 1963년 南山根 石槨墓 出土가 代表的인 例라고 할 수 있다.

ⅡC型：劒身과 柄 사이에 양측으로 凸한 護手가 나와 있으며 護手는 長方形 隨圓形, 半月形, 獸形, 鳥首形 등이 있다. 柄首에는 溝構와 透孔이 있고 어떤 것은 動物紋을 장식하고 있다. ⅡC 型 短劒의 分布는 內蒙古와 인근 부근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年代는 春秋時代 後期 로 잡고 있다. 특히 C_{14}의 결과가 現在 로 부터 2540±105년이므로 春秋後期로 年代를 잡고 있다(圖四 13－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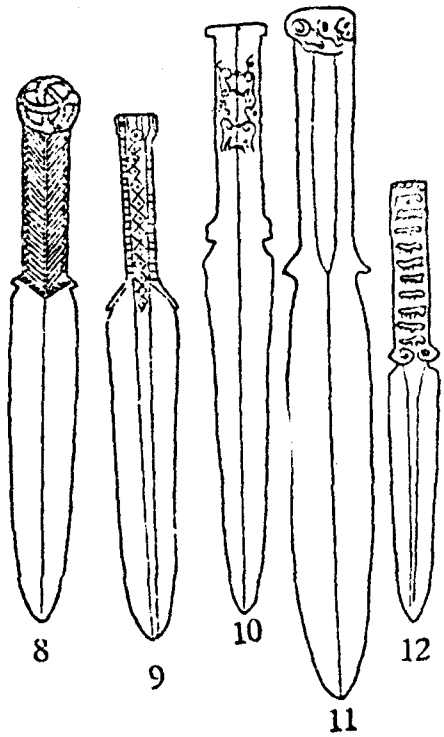
9) 烏恩 〈同上 論文〉 326.



圖二
ⅡA型.
3-7昌平白浮村

ⅢA型：劍身이 비교적 넓어지고 양쪽 날에는 뾰족한 突起가 나와 있다. 柄上에 여기에 맞추어서 끼웠던 섬유와 목질의 흔적들이 보이며 따라서 이와 같은 劍에는 木柄을 장식하였다는 사실을 알려 주고 있다. 이러한 계통의 劍들은 中國 北方에서는 주로 遼寧 河北에서 出土되고 있으나 실로 韓半島에서도 다수 出土例가 증가하고 있다. 이 劍의 年代에 대하여 종래 단편적으로 여러 견해가 속출한 바 있으나 十二台營子와 烏金塘등의 年代觀등을 검토하면서 烏恩은 西周후기로 年代를 잡고 있다(圖五 1-5). 이러한 年代觀은 우리나라의 여러 學者들이 대체로 琵琶形銅劍의 年代를 늦게 잡는 것과는 큰 차이점이 있다.

ⅢB型：ⅢA型에서 보던 曲刃의 뾰족한 突起는 점차 무뎌지고 따라서 劍刃이 弧曲되면서 劍柄은 T字形의 장식을 갖는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柄筒은 喇叭狀의 형태를 가지며 柄首에는 橫長條의 양식으로 장식을 가하고 있다. 이 短劍의 分布는 주로 遼西地方에서 出土되고 있다. 이 劍들의 年代는 春秋時代 後期 또는 戰國時代 初期로 비정되고 있다. 鄭家窪子, 沈陽 南塔 등의 劍들이 모두 이러한 범주에 드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 分布는 매우 넓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圖 六 6-8).



圖三
ⅡB型 8-11 寧城 南山根
12 平泉 東南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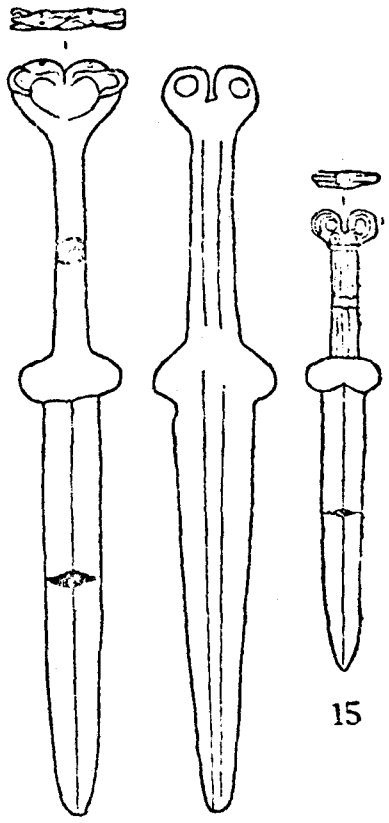


圖 四 ⅡC型 13. 杭錦旗 桃紅巴拉
14. 和林格爾 范家窯子
15. 懷来北辛堡

ⅢC型 : 劍身이 細長하여지나 여전히 兩刃에 突起부분이 조금 남아 있으며 刃部가 弧曲하여지면서 劍叶이 좁아지고 있다. 劍柄은 역시 T字形이고 柄筒의 문양은 작은 비늘모양의 三角回達紋, 羽狀紋, 粗斜線紋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종류의 短劍은 주로 遼南및 遼東半島에서 집중적으로 出土되고 있다. 이러한 범위에 드는 유적으로는 海城大屯, 撫順등지의 劍이 여기에 해당하며 年代는 戰國 中, 後期로 잡고 있다(圖 七 9-14).

따라서 현재까지 알려진 靑銅短劍의 유적, 유물에 관한 分類에 따라 分布圖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하여온 Ⅰ, Ⅱ, Ⅲ型의 分布地域과 年代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圖表가 될 것이다.

型 式	地 域	年 代
ⅠA	河北北部, 山西北部	商代후기, 西周초기
ⅡA	河北 北部	西周 초기
ⅡB	遼寧 西部, 河北 北部	西周 후기, 春秋초기
ⅡC	內蒙古및 인근 부근	春秋 후기
ⅢA	遼寧 河北	西周 후기
ⅢB	遼西 一帶	春秋후기, 戰國 초기
ⅢC	遼南및 遼東半島	戰國 중, 후기

그러면 Ⅰ, Ⅱ, Ⅲ型의 靑銅短劍은 순서대로 變化 發展을 한 것인가? 하는 문제점에 부딪치게 된다. 물론 烏恩은 Ⅰ型을 가장 오랜 형식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부터 점차로 ⅢC 型까지 변화의 순서를 고려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Ⅰ型은 發見된 유물의 例가 적고 그 年代도 고려해 볼만한 점이 있는가 하면 이 유물의 分布地가 河北의 北部와 山西의 北部라는 사실은 전형적인 中國의 靑銅器 中心圈에서 다소 벗어난 지역들이다. 뿐만 아니라 Ⅱ型의 3가지 형태들은 型式學的으로는 유사성이 있으나 오히려 ⅡB와 ⅢA가 共存하고 있는 例가 南山根에서 報告되고[10] 있어 일률적인 年代觀을 갖는데에도 주의를 요하고 있다. 오히려 Ⅰ型과 Ⅱ型은 短劍들이 通鑄로 되어 있으나 Ⅲ型은 劍身과 손잡이 부분이 분리, 제작되어 있다는 뚜렷한 차이점은 생각할 때 系統이 어떻하던 간에 鑄造面에서 Ⅲ型은 커다란 方法上의 진전을 보고 있다. Ⅲ型에서도 ⅢA가 木柄을 사용하다가 ⅢB, ⅢC에 와서는 T字形 銅柄으로 대치되고 있는 점도 우리는 관심을 갖고 보아야 될 것같다.

10)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 東北工作隊 1973. 〈寧城縣南山根的石槨墓〉 《考古學報》2. 圖版 6. 參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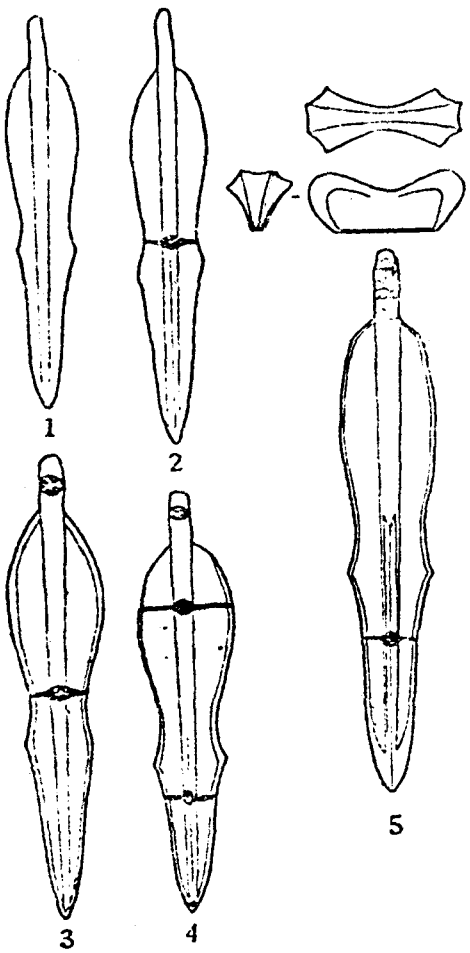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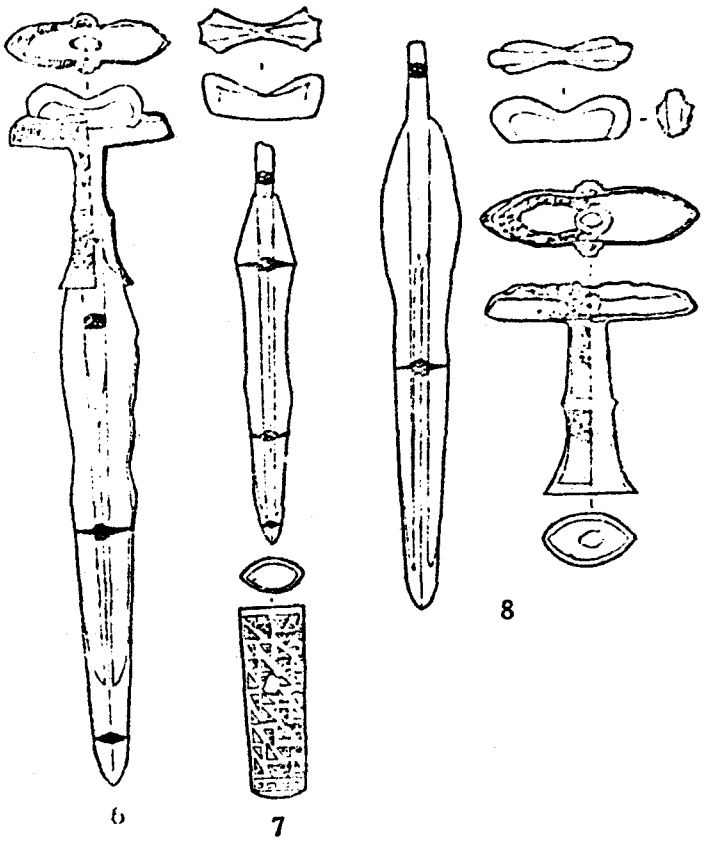


圖 五
Ⅲ A型 1. 寧城 南山根
2. 錦西 烏金塘
3. 旅順 后牧城驛
4. 遼陽 二道河子
5. 朝陽十二台營子

우리가 中國 北方의 青銅短劍을 일별할 때 우선 주목의 대상이 되는 것은 Ⅱ型의 銅劍들이다. 위의 도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같이 이 유물들의 分布地가 河北北部와 遼寧, 內蒙古 등지라는 사실은 유사한 劍들이 나타나는 시베리아의 카라스크 文化와 따가르 文化를 곧바로 연상하게 된다. 다만 Ⅱ型에서 Ⅲ型으로 자연스럽게 変化 発展된 내막은 여전히 자세히 알 수가 없으나 위에서 지적한 바 있듯이 ⅡB와 ⅢA가 南山根 등 유적에서 共存하고 있다는 점이 역시 흥미를 끌고 있다. 그런데 烏恩은 ⅡB와 ⅢA가 夏家店上層文化에 属하고 T字形銅劍과 夏家店上層文化와는 명확히 차이가 난다고 논증을 하고 있다.[11] 원래 夏家店文化는 上,下層으로 區別되는 바 이 文化는 性格上 完全히 다른 属性으로 文化性格이 판명된 바 있다.[12] 따라서 夏家店上層文化는 年代가 대체로 西周, 春秋를 거치고 늦으면 戰國時代까지 내려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므로 年代上으로 볼 때 遼寧地方의 青銅短劍은 夏家店文化와 T字形銅劍文化로 大別될 수가 있을 것이다.[13]

그런데 한가지 더 짚고 넘어갈 사항은 카라스크 文化와 따가르文化에 유사한 Ⅱ型의 銅劍들을 烏恩은 자세한 論證을 제시하지 않고 中國의 青銅劍의 年代가 이르다는 理由를 들어 시베리아 青銅器文化의 영향과는 전혀 無関한듯 그러한 方向으로 이끌고 가는 인상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中國北方의 青銅短劍을 카라스크 文化나 따가르 文化와 직접 연결시킨다는 뜻은 아니라 하더라도 中共에서 시베리아 青銅器文化의 영향설을 구체적으로 지적, 부인하고 나선 점은 우리의 주의를 끌기에 충분한 요인을 갖고 있는것 같다. 적어도 근년에 와서 시베리아 青銅器時代가운데 카라스크 文化라던가 鐵器文化로들 들어가는 따가르 文化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논지를 전개시키는 것은 青銅短劍의 경우 이번이 비교類型學을 동원한 최초의 例가 되는것 같다. 前에는 넓은 의미에서 中國과 시베리아 青銅器文化간에 交流관계가 언급된 바 있었으나 근년에 와서는 中共과 蘇聯의 학자간에 中國文明

11) 烏恩 〈前揭論文〉 329.
12) 中国科學院 考古研究所 内蒙古發掘隊, 1961〈内蒙古赤峯 葯王届, 夏家店遺址試掘簡報〉《考古》 2, 80.
13. 烏恩 〈前揭論文〉 330.



ⅢB型 6. 喀左 南洞溝
7. 沈陽 鄭家窪子
8. 錦西 寺兒堡

의 起源문제를 둘러싸고 격렬한 論戰을 전개하고 있다. 그 가운데 靑銅器문제가 포함되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 바시리에프(Vasiliev)의 中國文明 起源論이[14] 발표된 이후 中共에서는 이에 대한 반박논문이 발표되므로서[15] 兩國間에 文明에 관한 논쟁은 더욱 치열한 양상을 띄울것 같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中國北方에서 出土되는 靑銅劍들이 中國 고유의 靑銅劍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베리아의 카라스크 文化나 따가르 文化에서도 유사한 銅劍들이 出土한다는 점은 깊이 유의해야할 사항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다. 대체로 類型學에 치우쳐서 유물을 보는것은 위험한 연구방법이며 따라서 최소한의 다른 유물이나 유적의 성격을 갖인 특성들을 첨가시켜 비교해야 오류를 범할 가능성을 제거하게 될것이다. 이 점에서 우리는 시베리아의 카라스크 文化와 石棺墓를 中心으로 靑銅器文化를 고찰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

Ⅱ. 카라스크 文化의 石棺墓

시베리아 靑銅器文化는 아화나시에보(Afanasievo), 안드로노프(Andronovo), 카라스크(Karasuk)단계를 거쳐 따가르(Tagar)文化에 이르고 있다. 여기서 카라스크 文化는 韓國의 靑銅器文化와 연관이 되는데 이 文化의 年代는 異見이 있지만[16] 대체로 키제레프(Kiselev)의 견해에 따라 B.C.1300~B.C.800年으로 年代를 잡고 있다.[17] 우리는 카라스크 文化가 靑銅短劍을 포함하여 청동단추, 石棺墓 등을 지니는 특성있는 文化를 소유하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이 가운데

14) Vasiliev. L. S. 1974 "Proiskhozenie drevnekitaiskoi tsivilizatsii" *Voprosy istorii* 12, 86~102.

15) 1974 〈從爲家窪類型 駁瓦西里耶夫的 "中國古代文化西來說"〉《文物》3. 24—30.
楊育彬 1976 〈評瓦西里耶夫 "古代中國文明的起源〉 《文物》 7 26—29

16) 金貞培 《前揭書》 130 註 109

17) Jettmar K. 1969 "Cross dating in Central Asia", Unpublished paper (Harvard Seminar)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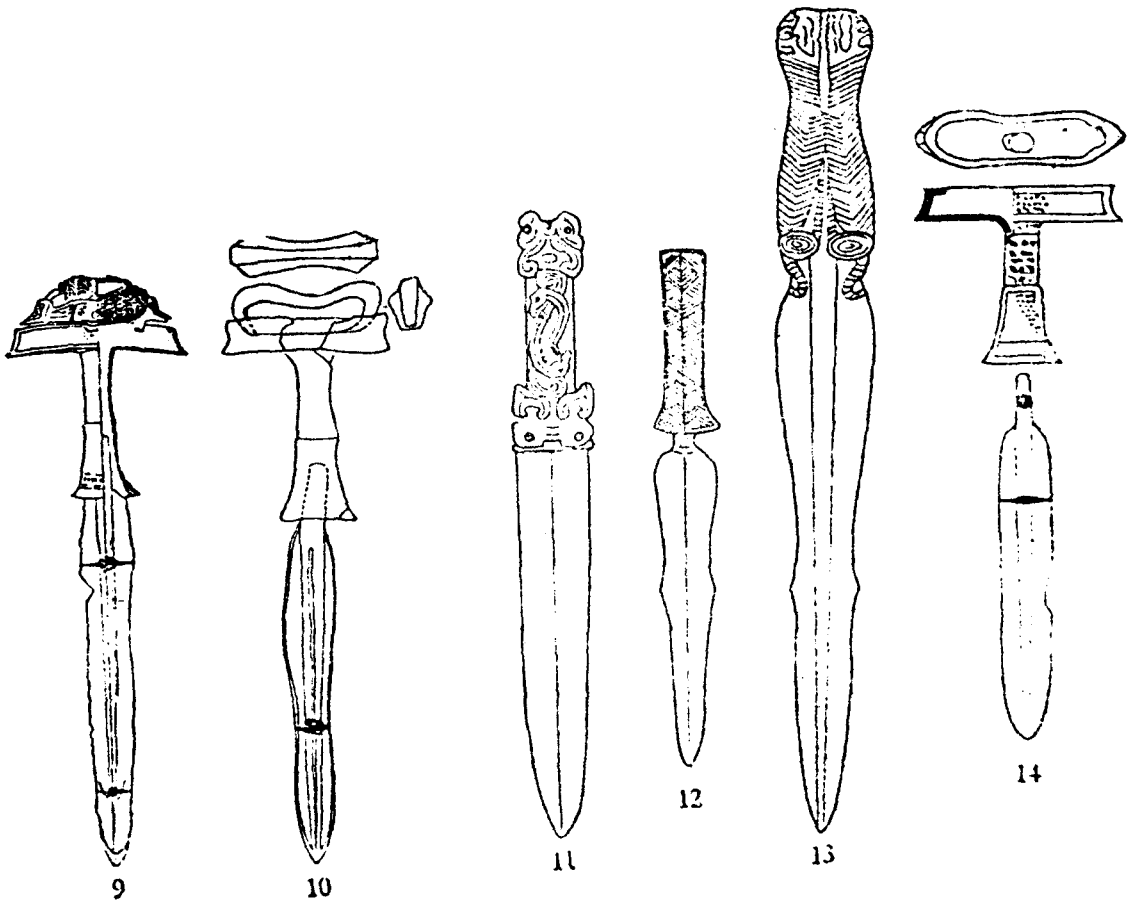


圖 七

Ⅲc型 9. 海城大屯
10. 旅順后牧城驛
11－13. 寧城南山根
14. 旅順后牧城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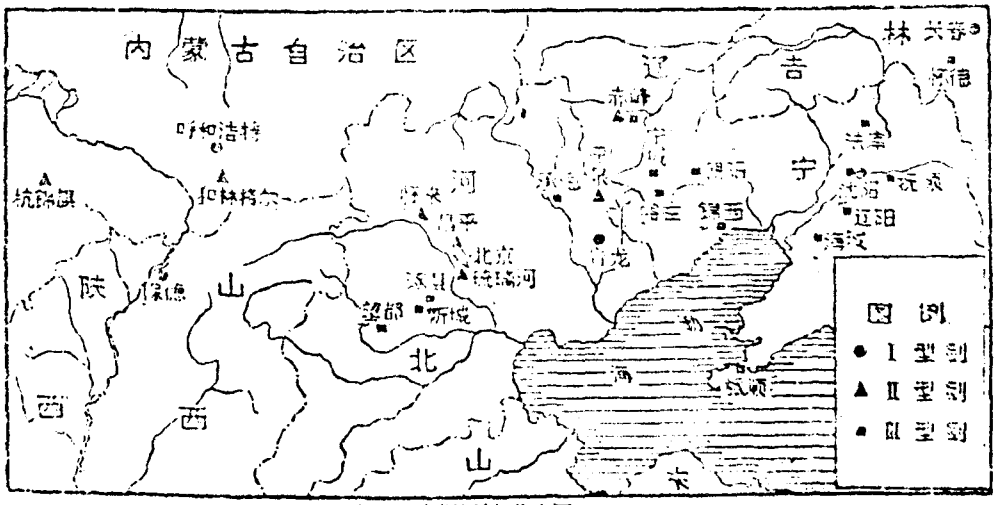


圖 八、青銅短剑 分布圖

서도 카라스크 文化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점은 墓制인 石棺墓이다. 카라스크 文化의 묘제인 石棺墓는 이 文化의 전형적인 특징으로 알려지고 있다.[18] 미누신스크(Minusinsk) 西北쪽에는 이와같은 石壁처럼 둘러져 있는 것이 원형으로 줄 서 있는데 이것은 카르스크 文化보다 더 오래된 아화나시에보와 안드로노보 文化의 유산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므로 장방형의 돌을 쌓아서 만든 石棺墓는 시베리아의 미누신스크를 中心으로 한 넓은 지역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것이다. 이 石棺墓는 일반적으로 사다리꼴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머리와 어깨부분이 더 넓어지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사방의 벽을 넓은 板石으로 쌓고 그 위는 데본期(Devonian)의 砂石으로 石棺의 위를 덮게 된다. 그리고 몸은 등을 바닥에 두는 仰身葬이거나 몸을 옆으로 눕는 것이 보통이다. 頭向은 東쪽이거나 또는 東北方向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19]

이와같이 시베리아의 미누신스크를 중심으로 한 카라스크 文化의 墓制가 石棺墓라는 사실을 再次 강조하고 보면 이제 石棺墓의 中心地와 그들의 分布圈을 고찰할 때 문제해결에 한발짝 더 전진하게 될 것이다. 라리체프(Larichev)는 石棺墓의 中心地를 東北(Tung Pei)지방과 內蒙古로 보고 있으며 그곳이 中心이 되어서 各処로 확대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므로 中國 변경과 東北지방에서 훨씬 떨어진 지역까지도 石棺墓가 存在함을 들면서 北으로 바이칼湖지역은 물론 안드로노보와 카라스크 시대에는 東部 유럽까지 이 영향이 전화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20] 예트마(Jettmar)도 石棺墓의 分布가 바이칼지역, 北蒙古지역, 튜바(Tuva)지역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統一的인 墓制라고 인식한 바 있다.[21] 또한 鄭德坤도 石棺墓가 北部 유라시아 大陸의 초기 역사의 共通된 특징임을 언급하면서 그 分布가 東으로는 日本, 韓國, 滿洲, 蒙古로부터 西쪽은 시베리아와 러시아 지역까지라고 넓은 지역을 언급한 바 있다.[22]

石棺墓의 発生이나 그 年代에 대하여는 많은 견해가 없지만 라리체프는 中國의 歷史에서 殷과 周의 교체기에 石棺墓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피력한 바가 있었다.[23] 그리고 예트마는 기원전 8세기에 石棺墓가 発生한 것이라는 견해도 표명한 바 있었다.[24] 石棺墓의 発生과 年代를 中國의 政治的事件과 연결시키거나 또는 年代를 考慮하는 데에는 지난날의 연구 업적이 크게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 왜냐하면 칼그렌(Karlgren)이나 키제레프는 각각 中國의 殷代 青銅器가 미누신스크의 카라스크 文化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25] 그러나 鄭德坤은 이에 관하여 言及하지 않고 있으며 張光直은 오히려 中國 東北지역의 石棺墓의 主人公은

18) Jettmar. K. 1950 "The Karasuk Culture and its south-eastern Affinities. *BMFEA* vol. 22. 88.

19) Jettmar K. Ibid. 89

20) Larichev V. Ye 1974 "Ancient Cultures of Northern China," Michael, H. N. ed, *Archaeology and Geomorphology of Northern Asia* 240

21) Jettmar K. 1950 Op, Cit., 122

22) Cheng Te Kun, 1963. *Archaeology in China* 3, 138

23) Larichev. V. Ye 1964. Op, Cit., 2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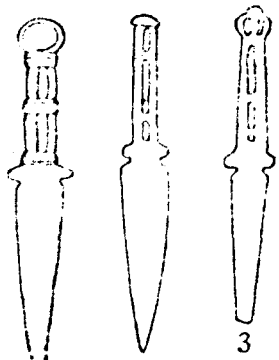
24) Jettmar, K. 1967 *Art of the Steppes* 143

25) Karlgren B. 1945 "Some Weapons and Tools of the Yin Dynasties" BMFEA 17. 101~144
Jettmar 1969, Op, Cit., 14

東夷내지 濊貊族이라고 간주하고 있다.[26] 다시 말해서 中國의 전형적인 墓制가 아님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中國系 學者 자신들까지도 石棺墓는 外部的인 墓制로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카라스크 文化에 끼친 殷文化의 영향설은 올도스(Ordos)지역의 殷과 西周의 文明의 유입과정이 잘 알려져 있지 않으므로써 확언을 하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27] 이와같은 狀況에 있기 때문에 카라스크 文化에 영향을 준것 같이 논급한 칼그렌이나 키제레프의 견해도 충분한 뒷받침을 받지 못하는 입장에 있다고 말할 수가 있다.

오히려 우리는 카라스크 文化를 논하면서 기본적인 墓制인 石棺墓를 가볍게 취급하였던 方法論에 잘못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으로 믿으며 石棺墓가 分布하는 地域의 여타의 유물들을 비교해 보는 편이 훨씬 유리한 뒷받침이 되면서 보다 나은 結論을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코자 한다. 통념적으로 카라스크 文化 다음에는 따가르 文化가 存續하였음은 周知하는 바이고 이 文化를 흔히 스키티안(Scythian)文化, 스키토-시베리아文化 또는 動物장식의 문양을 지니는 文化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스키티안 文化가 시베리아에 存在하는 理由는 여러가지 說이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結論을 내리는 것은 위험하다. 오히려 그와같은 文化의 起源을 다룬 견해가운데는 흔히 스키토-시베리안(Soytho-Siberian) 文化가 아시아에서 발생하였다는 아시아의 說(the Asiatic theory)도 유력하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도 있다. 스키토-시베리안 文化의 장식에는 動物문양이 특징이라는 사실은 너무나 알려진 이야기이지만 실은 카라스크 文化의 劍의 장식에도 動物의 문양이 있는 것이다. 1971년 아르잔(Arzhan)의 王陵에서 出土된 유물에 의하여 動物의 문양이 카라스크 文化에서 부터 나온다는 새로운 사실에 접하게 되었다. 바로 이와같은 사실은 스키토-시베리안 文化의 아시아說을 더욱 자극하게 되었다. 뿐만아니라 動物문양의 유물은 그 선구자로 카라스크 青銅美術에서 구하게 되는데는 아르잔(Arzhan)의 유물이 훌륭한 자료가 되었다.[28]

카라스크 文化에서 나타나는 青銅短劍은 위의 사실을 유념할때 한층 윤곽이 뚜렷하게 부각되어지는 것 같다. 이제 미누신스크에서 나온 카라스크 青銅短劍을 보면 中國地方에서 출토되는 앞에서 본 ⅡA, ⅡB 型式의 青銅短劍과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圖九, 1－3) 이 青銅短劍은 양쪽에 小齒가 있는 이외에 그밑에 缺口가 있는 것 등 中國地方에서 나온 青銅短劍과 거의 같다.



圖九 1－3
카라스크文化의 凹格 短劍

다만 한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카라스크 文化의 劍身이 鋒部로 갈수록 더 좁아지고 있는 반면 ⅡA型이 이 보다 넓다는 점 뿐이라고 보겠다. 그러나 兩文化의 동물형 장식은 모두 같으므로 어느 文化가 더 오랜 것인가는 속단하기가 어려운 입장이다. 다만 石棺墓가 카라스크 文化의 墓制이기 때문에 이 사실에 근거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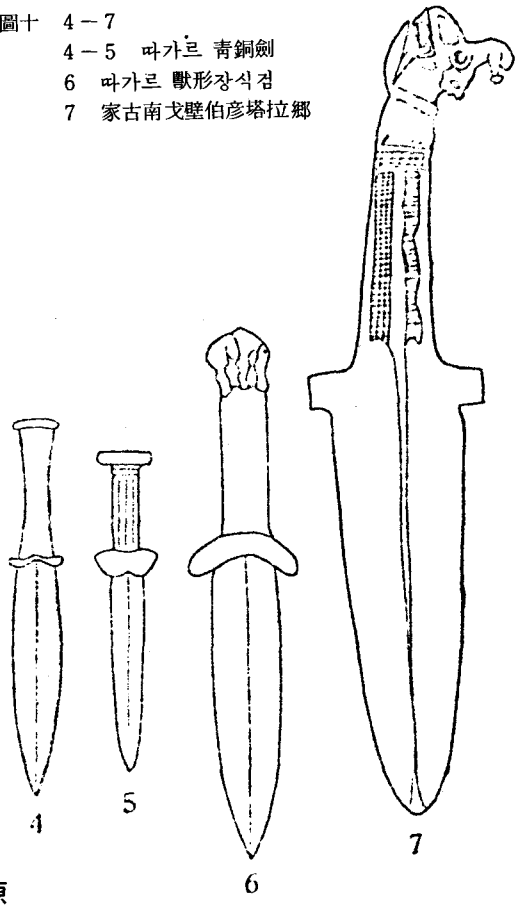
26) Chang, K. C. 1977 The Archaeology of Ancient China (Yale Univ. Press) 387－388
27) Chang, K. C. Ibid 394－395
28) British Museum 1978, Frozen Tombs－The Culture and Art of the Ancient Tribes of Siberia, 12

는 한은 카라스크 文化의 短劍은 일방적으로 中国 北쪽의 短劍보다 늦다고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앞에서도 서술하였듯이 石棺墓의 年代로[29] 보거나 동물형 장식을 가진 短劍이 시베리아 바이칼湖의 동쪽에서 발견되고 있고, 이러한 종류의 검이 B. C. 1300－B. C. 800년간에 그 지역에서 만들어진 遺物이라고[30] 볼때 카라스크 文化의 青銅劍은 그 獨自性에서 충분한 立論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단계 다음에 오는 따가르文化의 단검도 앞에서 보았던 ⅡC型의 青銅短劍과 아주 비슷하다. (圖十, 4－7) 특히 劍身과 柄사이 凸起한 護手는 물론이고 動物의 문양이 柄首에 조각된 것도 同一한 양상이다.

이처럼 따가르 文化의 青銅短劍과 中國地方 에서 나타난 ⅡC型의 短劍은 카라스크 文化가 그러하듯이 이 단계에서도 同一한 수법이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따가르 文化의 分布가 카라스크 文化와 마찬가지로 넓고 또 전형적인 中國劍과 차이가 나는 것은 周知하는 바이기 때문에 이 問題도 향후의 연구결과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것 같다. 다만 動物型 장식 등이 스키토－시베리안 文化의 특징이라고 하면 이미 따가르文化 이전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카라스크 文化에서 그 祖形이 발견되므로 시베리아 지역의 青銅器文化는 향후에도 계속 연구결과를 주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圖十 4－7
4－5 따가르 青銅劍
6 따가르 獸形장식검
7 家古南戈壁伯彦塔拉鄕



Ⅲ. 韓國 青銅器 文化의 起源

우리는 지금까지 中國東北方에서 넓게 나타났던 青銅短劍의 여러 형식을 검토한 內容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카라스크 文化의 石棺墓와 그 分布및 年代問題를 일별하여 보았다. 따라서 카라스크 文化와 따가르 文化에서 보이는 青銅短劍등이 中國 東北方에서 出土된 青銅短劍들과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들 검들이 通鑄되었다는 점에서 보면 琵琶形銅劍은 확실히 鑄造上에서 진전된 양상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우리는 南山根에서 ⅡB型과 琵琶形 短劍의 ⅢA型이 共存하는 事例를 알고있기 때문에 兩者間의 時間的인 연관 관계를 參考하는데는 좋은 자료가 되었다고 믿는다.

---

30) Grishin, Iu, S. 1968 Oplitochnyhy mogilakh Vostochnovo ZaBaykal' ya Sovetskaya Arkheologiya, 1. 177－184

우리가 韓国의 青銅器文化를 논의할 때는 지금까지 完成단계의 細形銅剣등에 지나친 배려를 하면서 연구를 진행시켜 온것같다. 실제로 유물이 出土된 사실에서 말한다면 細形銅剣은 큰 비중을 占하는 유물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琵琶形銅剣이 遼寧등지에서 一部 出土되었던 지난날의 사정과 現在와는 너무나 양상이 다르다. 다시 말해서 비파형동검은 中國의 遼寧地方에서 부터 韓半島에 걸쳐 고루게 出土되고 있으며 지금 우리나라에서 알려진 비파형 동검은 遼寧지방에 못지않게 그 수가 증가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韓國의 青銅器文化의 源流와 그 유물의 分布를 고려할때 쉽게 비교적 명확한 線이 그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 이미 筆者는 오래전에 韓國의 青銅器文化의 本質的인 性格에 관하여 略述한 바 있어 더 논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다만 여기서는 그간에 나온 새로운 자료와 업적을 일별하면서 本人의 논지를 간단히 적고자 한다.

筆者가 우리나라 青銅器文化의 起源을 시베리아의 카라스크 文化(B.C. 1300－B.C. 800) 에서 구하는 기본적인 근거는 이미 別稿에서[32] 윤곽을 개진한바 있다. 그 후 筆者의 견해와 같은 생각을 갖는 學者도 있었고 또 우리나라의 青銅器文化가 中國의 桃氏剣에서 起源을 찾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놓은 研究者도 있었다.[33] 또 遼寧地域의 青銅器文化에서 근원을 찾으려는 많은 見解도 있었다. 筆者는 여전히 카라스크 文化와의 관련성을 주장하는 바이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를 든다면 墓制인 石棺墓때문이라고 일단 대답을 할 수가 있겠다. 앞에서도 논한바와 같이 石棺墓는 카라스크文化의 基本的인 墓制이다. 그런데 이 石棺墓는 滿洲와 遼寧등지에 넓게 分布하고 있고 예외없이 우리 나라에도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中國의 경우 멀리는 唐山[34] 까지 그 分布가 미치어 있다.

소위 琵琶形銅剣이 出土하는 유적은 대개의 경우 石棺墓계통이라는 것은 일일이 유적의 이름을 열거하지 않더라도 쉽게 간파할 수 있는 일이다. 南山根이나 沈陽 鄭家窪子, 朝陽十二臺營子등 은 너무나 잘 알려진 유적들이다. 특히 南滿洲 老鐵山 郭家屯에서 한번에 비파형 단검이 15개나 나온 유적은 나머지 유적에 남아있는 돌의 흔적으로 보아 石棺墓系임이 틀림이 없다. 이것은 中國의 東北地域만의 특성은 아니다. 韓半島의 경우는 더욱더 明白하다. 따라서 扶餘 松菊里 유적이[35] 그 점에서 石棺墓의 전형적인 例가 된다. 물론 土壙墓系統에서도 연관이 있으나 墓制의 先後 관계를 볼때 石棺墓의 중요성은 우리나라 青銅器文化의 源流를 탐구하는데 基本的인 方向을 제시하여 주는 것이다.

현재까지 韓半島에서 알려진 비파형 단검은 매우 많다. 정확한 발굴로 出土된 것도 있으나 많은 경우 出土地를 알 수 없는 것이 있고, 또 장소를 알수있다고 하여도 발굴하여 나온것이 아니므로 學的価値는 半減되는 경우는 있다. 그러나 이들은 거의 韓半島에서 出土되어 진것으로 믿는다면 다른 유적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있지만 대개는 石棺墓 계통의 墓에서 나타났을 가능성 많다고 筆者는보

---

31) Grishin, lu, S. 1968 Tam zhe

32) 金貞培 〈前揭論文〉 參照

33) 全榮來 1976 〈完州上林里出土 中國式銅剣에 關하여〉 《全北遺蹟調査報告》 6

34) 安志敏 1954 〈唐山 石棺墓及其相關的 遺物〉 《考古學報》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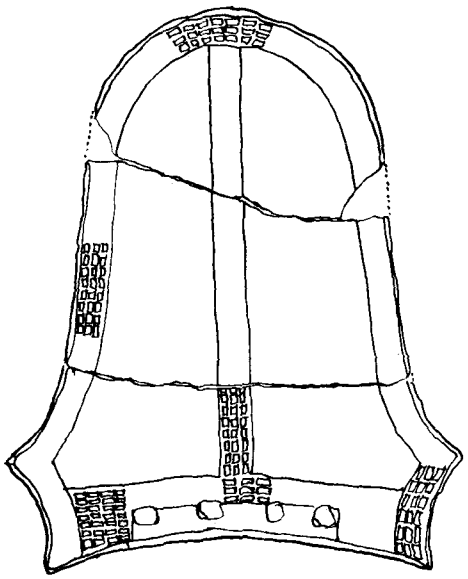
고자 한다. 최근에 南城里 石棺墓에서 비록 비파형동검은 아니지만 세형동검과 防牌形銅器, 劍把形銅器, 銅鏡등이 나온것도 이점에서 興味가 있다. 특히 劍把形銅器 A의 前面에 動物인 사슴이 조각되어 있는데[36] 이것은 動物문양의 青銅器가 石棺墓系統에서 나왔다는 점에서도 주목되는 현상이다. 이와같이 石棺墓의 分布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심지어 石棺墓는 中央아시아의 青銅器文化인 카이라쿰(Kayrakkum)文化에서까지도 나타나고[37] 있다. 이제 筆者[38]와 金英夏[39]가 作成한 비파형동검 출토 일람표에다 현재까지 알려진 例를 첨가하면 아래와 같다.

出 土 地	参 考 文 献
1 .平安南道	《大正11年度(1922)古蹟調査報告》 2. PL. 71
2. 平南 平壤부근	《朝鮮古文化綜鑑》 PL. 36－167
3. 연안군 금곡동	황기덕 1974《고고학자료집》 4
4. 평양시 서포동	〃
5. 平南介川郡 竜興里	韓炳三 1968.〈介川竜興里 出土 青銅剣과 伴出遺物〉《古古學》 1.
6. 江原道 春川부근(A)	有光教－1938〈朝鮮江原道の先史時代 遺物〉《考古學雜誌》 28－11. 第4圖
7. 〃 (B)	〃
8. 國博購入 1號剣	韓炳三〈前揭論文〉第2圖左
9. 2 〃	〃 第2圖右
10 3 〃	尹武炳〈韓國青銅遺物의 研究〉《白山學報》 12.
11. 4 〃	〃
12. 忠南扶餘松菊里	金永培, 安承周 1975〈扶餘松菊里 遼寧式銅剣 出土 石棺墓〉《百済文化》 7·8
13. 扶餘博物舘 A)	本 論文
14. (禮山) (B)	〃
15. 忠南大 博物舘	金英夏 1977〈韓国式 銅剣形式 分類試論〉《東洋文化》 4.
16. 慶熙大 博物舘	〃
17. 崇田大 博物舘	金元竜外《青銅器 時代와 그 文化》 (三星文庫)
18. 全北益山 竜華山	全貞培 1976〈準王및 辰國과 三韓伝統論의 問題〉《韓国史研究》 13.
19. 傳茂州 (A)	金元竜〈伝茂州出土 遼寧式銅剣에 대하여〉《震檀學報》 38.
20. 〃 (B)	
21. 嶺南大 博物舘	1977. 《嶺南大 博物舘 案内書》
22. 東亜大 博物舘	1977《東亜大博物舘 圖録》

35) 金永培·安承周 1975〈扶餘松菊里 遼寧式 銅剣出土 石棺墓〉《百濟文化》第7, 8合輯 7－30
36) 韓炳三, 李健茂 1977《南城里 石棺墓》國立博物館 古蹟調査報告 第十冊 圖版 13
37) Belenitsky, A., 1968 Central Asia. (Archaeologia Mundi) 47
38) 金貞培 1976〈準王 및 辰國과「三韓正統論」의 諸問題〉《韓國史研究》 13, 20
39) 金英夏 1978〈韓國式 銅剣 分類再論〉《韓國史研究》 20, 12

23. 全南高興郡雲垈里	有光教－《朝鮮磨製石劍의 硏究》PL. 25－4
24. 京畿道 楊平郡上紫浦里	奏弘燮・崔淑卿 1974〈楊平郡 上紫浦里 支石墓 発掘報告〉《八堂・昭陽댐水沒地区 遺蹟発掘》
25. 京畿道 竜仁 草芙里	鎔范(A) 國博 1968《青銅遺物圖録》
26. 〃 (B)	〃

위의 表에서 알수 있듯이 우리나라에서 나타난 琵琶形短劍은 그 수가 보통 이상이다. 더구나 中國의 東北方에서 出土된 비파형단검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短劍들, 即 ⅢA型의 銅劍들은 烏金唐 유적을 제외하면 南山根, 后牧城駅, 沈陽 二道河子, 朝陽 十二臺營子등 모두가 石棺墓계통의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들이다. 이러한 주목할만한 현상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韓半島에서 오래된 松菊里에서 보는 바와같이 同一한 石棺墓들이다. 이를 미루어 이해되듯이 이제는 石棺墓가 우리나라 青銅器文化의 起源을 연구하는데 중심적인 위치를 占한다는 사실은 재삼 깨닫게 된다. 물론 石棺墓는 모두가 青銅 短劍같은 유물을 내는 것은 아니다. 滿洲吉林의 西團山[40] 이나 최근에 37個의石棺墓가 발굴된 永吉의 星星哨水庫[41] 등의 石棺墓처럼 石器, 土器, 陶器만이 出土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가 하면 唐山의 小官莊 石棺墓는 위의 유적들과 같은 성격이나 雹神廟 石棺墓는 刀范과 斧范등이 발견되어 대조가 되기도 한다.[42] 그러므로 石棺墓의 성격이 일률적으로 副葬品에 의해서 규정지어 질수가 없고 그것이 오랜기간동안 存續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身分이란 地位에 따라 伴出物은 얼마든지 變化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石棺墓가 카라스크 文化의 墓制이고 中國 東北地域과 南滿洲 및 韓半島에 主된 分布를 보이고 있으므로 基本的인 青銅器文化의 主流의 하나는 의문점이 충분히 풀리게 되는 것이다.



圖十一 大田槐亭洞 出土

다음에 韓国의 青銅器文化가 시베리아의 青銅器文化와 다른 각도에서 흥미로운 연결이 되는 問題를 잠시 거론하고자 한다. 이미 動物문양의 短劍이나 劍把形 銅器에 조각된 사슴의 유물이 南城里 石棺墓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언급하였으므로 더 논의하지 않겠다. 그런데 南城里 石棺墓에서 나타난 防牌形 銅器등은 大田 槐亭洞의 一括 青銅器 유물과 유사한 성격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大田의 槐亭洞 青銅器 유물에는 銅製楯形金具가있다.[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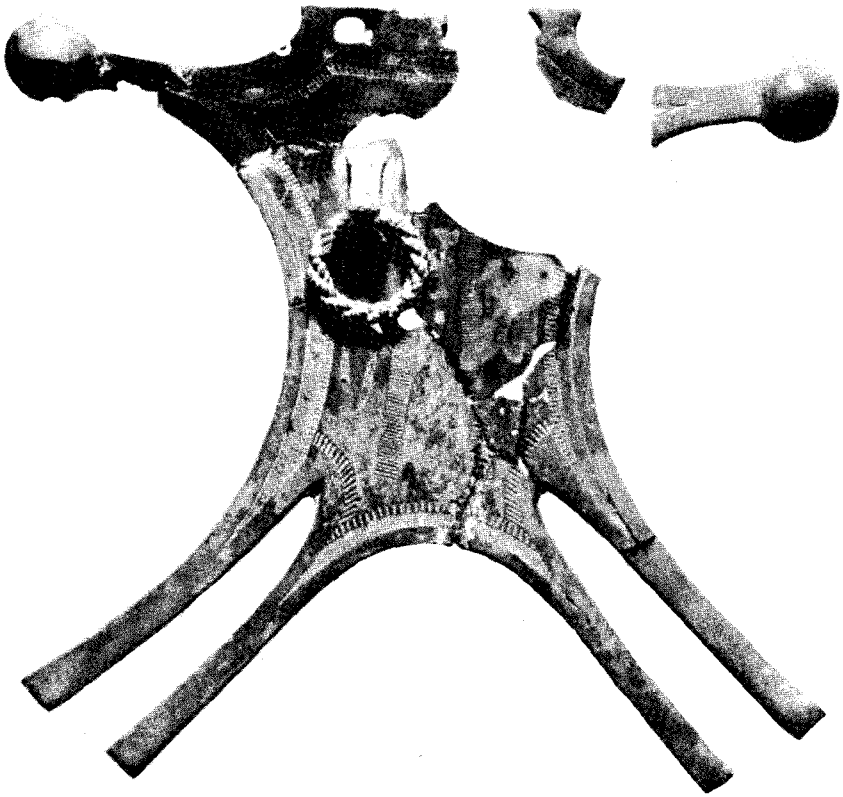
40) 東北 考古發掘團 1964 〈吉林 西團山 石棺墓 發掘報告〉《考古學報》 1. 29－50

41) 吉林市文物管理委員會 1978 〈永吉星星哨水庫石棺墓及 遺址調査〉《考古》 3. 145～150 157

42) 安志敏 1954 〈前揭論文〉 77－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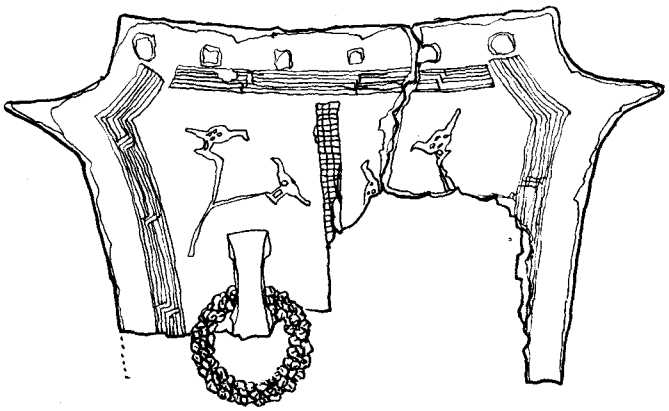
43) 李殷昌 1968 〈大田 槐亭洞青銅器文化의 硏究〉 《亞細亞研究》 Vol. XI. No. 2 75－95

이것은 長이 16cm, 幅(돌출부)이 13.5cm 上部幅이 11.5cm 두께는 0.2~0.3cm이다. (圖十一) 上部에는 구멍이 4개가 뚫려 있어 끈을 사용해서 매달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 銅器의 용도는 알 수가 없다고 報告者는 언급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防牌形銅器는 南城里 石棺墓에서도 出土되었다. (圖 十二)



圖十二 南城里 出土

兩者를 비교해 보면 南城里의 青銅器는 上部의 구멍이 세개인 것이 槐亭洞과 다르며 전반적인 모습은 南城里 青銅器가 많은 문양으로 장식되어 있다. 또한 出土地가 명확하지 않으나 傳大田이라고불리는 農耕文의 青銅器도 위의 두 자료들과 다소 공통점이 있다. 한면은 農耕의 모습을 조각하였고 다른 뒷면에는 나무위에 새가 앉은 모양을 조각하였다.[44] 이 青銅器의 上部에는 구멍이 6개가 나타나 있다. 圖十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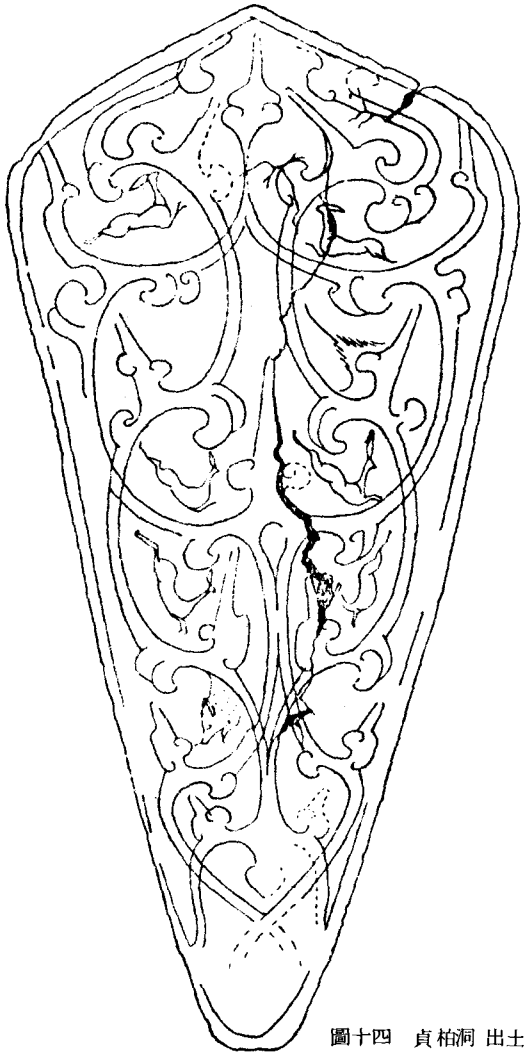
圖十三 傳大田出土

한가지 흠이 있다면 傳大田 青銅器유물은 정확한 出土地를 모른다는 점과 또함께 伴出된 유물을 알 수 없기때문에 実相을 옳바로 파악할 수 없는 약점이 있다. 이점은 향후의 자료로 보완되든가, 아니면 유사한 유물로 미루어 대체적인 성격을 유추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朝鮮古文化 綜鑑」에는 平壤 貞柏洞출토의 馬面을 소개하면서 알타이, 綏遠文化계통과의 관련성을 조심스럽게 언급하

44) 韓炳三 1971〈先史時代 農耕文 青銅器에 대하여〉《考古美術》112 3-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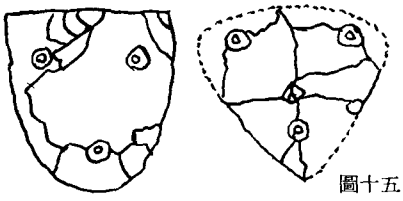
고 있다.[45] 上部가 높이 올라간 三角形의 모습으로 表面에는 雲文唐草를 조각하였고 그 사이에는 뛰는 동물과 나르는 새의 모양이 그려져 있다. 背面에는 上下에 한쌍의 鐶鈕가 있고 中央의 左右에 각 하나의 鈕가 달려 있다. (圖十四) 그런데 貞柏洞의 馬面과 유사한 것은 遼寧省 西岔溝 出土의 馬面[46] 이라고 보겠다. 秋山이 지적한 바와[47] 같이 馬面의 內容物이나 그 形式에 있어서 흡사할뿐만 아니라 西貧泡 유물이 土坑墓에서 出土된 점도 관심이 가는 問題이다. 특히 西岔溝文化 가 전반적으로 非 中国的인 文化로서 遊牧的 색채가 농후하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으며 馬面에도 鷹, 鹿등의 모습이 보이는 것은 貞柏洞의 馬面과의 相互関係를 유의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圖十四 貞柏洞 出土

1962년에 石巖里의 土壙墓로 추측되는 地下에서 細形銅劍, 馬具類와 함께 馬面이 出土된바 있다.[48] 馬面은 上部가 直線上에 놓이고 아래가 좁아지는 2등변 삼각형의 모습이다. 구멍은 각이 이루어지는 곳에 각각 하나씩 뚫려 있어 모두 3개이며 半球形의 청동제 장식못이 구멍속에 붙은 채로 발견되었다. (圖 十五)

이못은 馬面에 붙여진 장식못인것 같다. 大田槐亭洞에서 出土된 楯形 青銅器는 용도를 알수 없었으나 馬面이라고 보는 견해가[49] 제기된 바 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 青銅器文化와 연관되는 沈陽 鄭家窪子 유적에서는 琵琶形銅劍, 泡飾 喇叭形器, 斧囊등 다수의 青銅器 一括유물이 出土



圖十五 石巖里 出土

圖十六 沈陽出土

45) 梅原末治, 藤田亮策 1947《朝鮮古文化綜鑑》 1. 27
46) 孫守道 1960〈匈奴西岔溝文化古墓群的發現〉《考古》 8. 9, 35, 圖 9
47) 秋山進午 1964 〈樂浪前期の車馬具〉《日本考古學の諸問題》(河出書房) 270
48) 백련행 1965 〈석암리에서 나온 고조선 유물〉 《고고민속》 4 63-64
49) 金廷鶴 編 1972《韓國の考古學》(河出書房) 116
50) 沈陽故宮博物館 1975 〈沈陽鄭家窪子的兩座青銅時代墓葬〉《考古學報》 1, 141-163

되었다.[50] 이 가운데서 우리의 눈을 끄는 것은 琵琶形銅劍, 喇叭形銅器 斧囊 등이다. 報告者들은 그림에서(圖十六)보는 유물을 斧囊이라고 언급하는데 上部에는 長鈕가 있고 그곳에는 5개의 구멍이 나 있다.

이 유물은 원래 刀囊옆에서 발견 되었는데 그곁에 청동도끼가 있었기 때문에 報告者들은 斧囊의 곁에 달아맨 飾牌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뒷면에는 맬수있는 鈕가 없어 과연 斧囊인지는 의심이 가며 오히려 표면의 문양이 할슈타트(Hallstatt)文化의 양식과 비슷한 점이[51] 흥미를 끌게 한다. 할슈타트文化가 스키타이文化와 넓게 접촉한 사실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이점도 지금까지 살펴온 소위 防牌形銅器의 용도와 그 분포 범위를 고찰하는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위에서 검토한 防牌形銅器는 대체로 두가지 용도를 가진 유물로 해석되어 지고 있음을 알게된다. 첫째는 이것을 馬面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둘째는 鄭家窪子에서처럼 斧囊의 飾牌로 보는 의견이다. 이와 같은 견해는 모두가 韓半島와 中國 東北地域의 資料에서 결과들이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위의 자료들과 비슷한 유물들이 알타이지역 파지릭(Pazyryk)墓[52]에서도 나무로 만들어진 유물들이 出土되었다. (圖 十七, 1 -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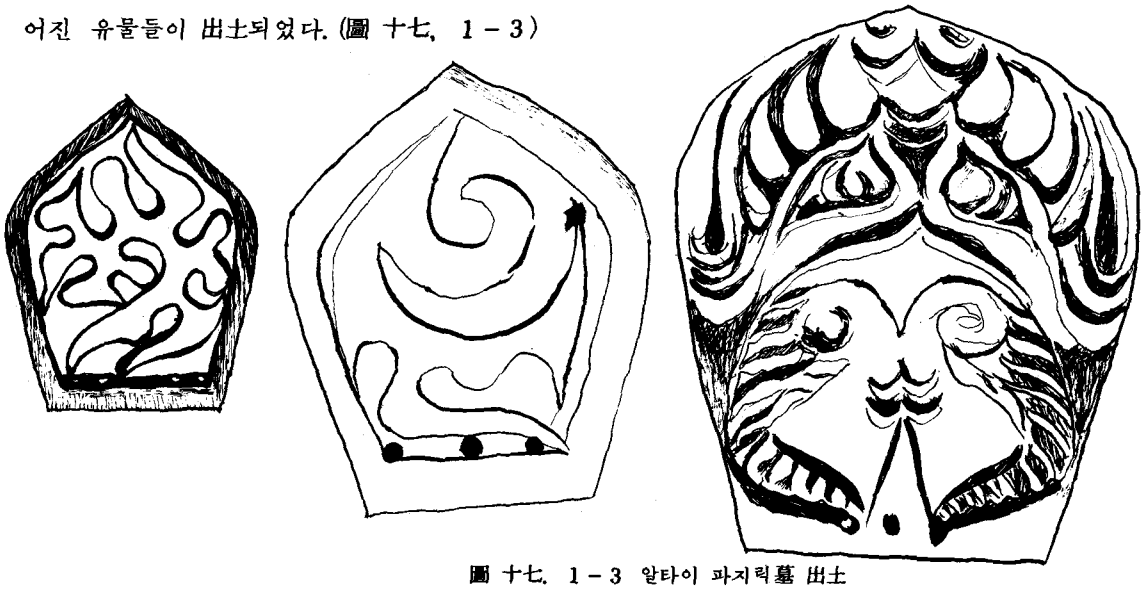


圖 十七. 1 - 3 알타이 파지릭墓 出土

이 유물들은 안장 장식들로 알려지고 있으며 크기는 대체로 9 × 9 cm, 8.5× 7 cm, 9 × 8 cm이다. 이 防牌形 안장의 장식은 초기 유목문화의 산물로 年代는 B.C. 5 - B. C. 4세기경으로 알려지고 있다. 上部에는 장식품이 끈(가죽)에 조여질 수 있는 구멍이 있는데 3개와 4개가 각각 나타나 있다. 防牌形 유물들의 성격이 위와 같다고 보면 앞에서 검토한바 있었던 비슷한 유물들이 사용된 용도가 이와 성격이 같았던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느낌이 든다. 다만 鄭家窪子에서만 斧囊의 장식용으로 해석되고 있으나 정확한 것은 아니므로 더 검토의 여지가 있다. 이를 제외하면 馬面이

51) 金元龍 1976 〈沈陽鄭家窪子 青銅時代墓와 副葬品〉 《東洋學》 6 137—157

52) British Museum 1978, Op. Cit., No. 88, 89, No. 96, 97

라던가 안장의 장식으로 해석되는 것은 兩者에 共通性이 있어 매우 흥미있는 사실이라고 보겠다. 오히려 안장의 장식과 관련되는 해석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앞으로의 연구를 기다릴 수 밖에 없을것 같다.

최근 禮山에서 나온 一括 靑銅유물들에는 늦은 시기의 형태로 보이는 琵琶形短劍과 喇叭形銅器들이 出土되었는데[53] 喇叭形銅器는 바로 鄭家窪子에서 나타나는 것과 同形의 것이다. 이것은 馬頭의 장식용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石棺墓系統의 넓은 分布와 琵琶形銅劍의 共通的인 分布, 그리고 위에서 言及한 防牌形銅器들의 유사한 시기의 출현들이 모두 時期는 다르다 하여도 相互 연관성이 있는 일관된 흐름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다. 다시 말하면 石棺墓계통이라는 墓制에서, 또는 琵琶形短劍의 分布나 伴出유물의 상관 관계에서, 또는 土壙墓나 스키티안 文化와의 관계등에서 우리나라 靑銅器文化의 源流는 충분히 理解되는 것이다. 時代가 다소 늦지만 防牌形銅器도 이와같은 흐름에서 이해할때 그 전모가 밝혀지는 것 같다.

우리가 韓國의 靑銅器文化의 起源을 논의할때 한두가지 더 첨가해서 말할 문제가 있다. 첫째는 카라스크文化에서 나타나는 型式의 銅劍들이 韓半島에서는 발견되는 例가 드물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型式의 ⅡB가 琵琶形短劍과 더불어 南山根에서 伴出되었다는 사실들은 石棺墓의 分布와 함께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것은 近年에 자꾸 발견되는 靑銅器유적이나 유물로 미루어 볼때 전혀 不可能한 일만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 둘째는 細形銅劍과 함께 소위 中國의 桃氏劍이 伴出되었다는 점이다. 즉 재령군 고산리 성황동의 土壙墓에서 이들 銅劍들이 함께 出土되었다.[54] 細形銅劍과 桃氏劍은 완전히 屬性이 다른 文化를 대표하는 유물들이다. 이들이 한곳에서 出土되었다는 것은 앞으로의 靑銅器硏究에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고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靑銅器文化의 編年 問題가 나오는데 이에 대하여 우리學界는 지나치게 遺物中心에서 型式에 얽매이는 작업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는다. 그러다 보면 靑銅器文化가 지니는 歷史性은 無視된 채 유물이 유물의 年代를 결정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하나의 유적과 유물이 지니게 되는 歷史性은 고려되지 않은채, 그리고 하나의 유물이 사용되었던 期間이 경솔하게 다루어지다 보면 旣存의 年代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扶餘 松菊里의 琵琶形 단검은 그러한 점에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준다. 여타의 伴出유물을 비교하여 보면 琵琶形銅劍은 결코 이들 유물과 同時代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55] 이같은 銅劍들이 存續하여 내려 오다가 후대의 유물과 함께 매장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理解하지 않으면 松菊里의 유적년대는 후대의 유물때문에 琵琶形短劍이 갖고 있는 年代가 전적으로 무시되어 編年設定上에 오류를 범하게 된다. 한 유물이 사용된 기간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지나치게 양식변천에 몰두하므로써 본래의 모습을 잃는 과오는 밟아서 안될것으로 믿는다. 나아가서 靑銅器文化 단계가 上古史에서 차지하고 있는 歷史의 발전과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때는 결국 그 연구는 무위로 돌아가게 된다는 점도 깊이

53) 현재 扶餘博物館에 소장되어 있다.

54) 황기덕 1974 〈前揭論文〉 159—160

55) 金廷鶴 1978 〈韓國靑銅器文化의 編年〉 《韓國考古學報》 5, 7

명심해야 할것 같다. 우리나라의 青銅器文化는 결코 遼寧地域만의 연관에서 問題点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例컨데 遼寧地域의 石棺墓들이 그 地域에서만 存在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그곳에서만 発生한 것이 아니다. 더 넓은 시야에서 이 問題가 고려되어야 한다. 筆者는 우리나라의 青銅器文化가 점하는 위치가 종래 운위되어온 소위 箕子朝鮮의 시대에 해당될 수 있음을 論한바 있으므로 起源問題와 관련되는 한에는 上限의 編年設定에 더 할 말은 없다고 본다.

結　　語

우리나라의 青銅器文化 起源은 어느 하나의 遺物이나 遺蹟만으로 설명되는 것은 아니다. 가능한 종합적인 고찰이 필요하지만 중요하다고 믿는 石棺墓, 琵琶形銅剣, 防牌形青銅器 등을 일별하여 볼 때 韓國의 青銅器文化는 시베리아 地域과 커다란 関係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琵琶形青銅剣등이 遼寧과 韓半島에서 集中的으로 出土되는 것은 반드시 韓國의 青銅器文化가 遼寧에서만 근거를 찾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더구나 石棺墓가 시베리아 青銅器文化인 카라스크文化의 墓制임을 다시 한번 確認할 때 石棺墓系統이 分布하는 地域과 그러한 地域에서 나오는 琵琶形短剣이나, 또 그뒤에 나타나는 防牌形銅器들의 유물의 성격을 십분 이해하게 된다.

우리는 한때 遼寧에서 주로 나오는 琵琶形銅剣에 대하여 특이한 観点에서 바라보았지만 현재까지 韓半島에서 나타난 이러한 青銅剣은 遼寧地域 못지않게 多數가 집적되었다. 따라서 遼寧지역은 중요한 地域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石棺墓등이 그곳에서만 나타난다던가, 또 発生한 것이 아니므로 우리나라 青銅器文化의 源流를 遼寧에서만 구하려는 착상은 위험한 일이다. 그 점에서 ⅡB型과 Ⅲ型이 共存하는 南山根 유적은 주목할만 하다고 보겠다.

카라스크 石棺墓의 年代로 보거나 遼寧地域의 琵琶形銅剣이 보여주는 유적의 年代로 보아 紀元前 10世紀 이전에 青銅器時代가 開始된 것은 너무나 明白하다. 지난날 琵琶形銅剣을 편년한 年代를 회고하면 이제 어느 方向에서 과오가 있었는가는 충분히 찾아낼 수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 그러한 年代를 갖고 上古史에 적용할 때 어떠한 歷史解釋이 도출되었던 것인가도 반성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악의 경우 型式으로 유물의 編年을 시도할 때 그것이 사용되어온 "기간"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되며 유물에 복합적 요소가 있다는 점은 松菊里의 琵琶形銅剣과 伴出유물이 단적으로 설명하여 주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의 青銅器文化는 시베리아 青銅器文化인 카라스크文化와 遼寧等 地域과 韓半島를 묶어서 자료들이 검토되어야 모든 실마리를 풀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 結果가 어떻게 上古史와 연결되는가 하는 問題는 앞으로의 연구를 기대하고자 한다.